

인도 섬유 산업

- 눈부신 발전으로 면화·화섬은 세계 제 2위 생산국

인도 경제는 계속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 화학 섬유 협회(日本 化學 纖維 協會)에서 발표한 인도 섬유 산업 조사(印度 纖維 産業 調査) 리포트를 요약 소개한다.

◎ 경제 환경 - 내수(內需)와 해외 자본 직접 투자가 받쳐줘

인도는 경제 신흥국(經濟 新興國)이면서도 수출 의존도가 낮으며, 내수와 해외 자본 직접 투자(海外 資本 直接 投資)가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경제의 혼란이 금융이나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쳐, 실체(實體) 경제는 멈추고 있다. 내수는 원래 바닥이 단단한데, 최근에는 내구 소비재에 대한 구매 의욕이 줄고 있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하나인 해외 자본 직접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부진을 피할 수가 없다. 정부의 경제 대책은 종래의 인플레이(inflation) 억제에서 금융 완화, 재정 출동(財政 出動)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 동시 불황에 의한 구미 외자(歐美 外資)의 투자 억제는 인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수는 빠른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구미 외자가 다시 인도 경제에 매력을 느껴 다시 활발히 투자할 것인가가 포인트이다. 섬유의 경황(景況)은 2008년 7 ~ 12월기는 단단한 바닥이 내수를 반영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구미 시장의 소비가 식어서 부진한 상태이다. 꾸준히 단단했던 내수도 수출과 엇비슷하게 부진하다.

◎ 소비 구조의 변화 - 여성의 양장화가 늘고 있어

인도의 내수는 중간 소득층이 급속히 늘고 있어, 매우 커지고 있다. 중간 소득층은 년 수입이 대체로 40만 ~ 200만 엔의 세대에서, 현재는 전세대의 10% 정도가 되겠는데, 앞

으로의 인도 국내 시장이 확대되는 중심이 된 것 같다. 이에 따라 여성의 양장화도 늘고 있다. 지금도 여성은 사리(sari)나 펀자비 드레스(punjabi-dress)와 같은 전통적 의복을 입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양장화도 많아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직장 환경의 개선, 대형 상업 시설의 충실(充實) 등이, 여성의 의류 소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 같다. 소매의 근대화·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물결은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갈 전망이다.

◎ 섬유 산업 - 총 공업 생산의 14% 차지

섬유 산업은 총 공업 생산의 14%이고,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4%, 전체 수출의 약 1/7을 차지하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면화는 세계 제 2위의 생산국이며, 화섬(化纖)도 2007년에 중국 다음으로 세계 제 2위이다.

방사(紡絲), 방직(紡績), 제직(製織), 제편(製編), 염색(染色), 의류 봉제(衣類 縫製)까지 각 공정을 다 갖추고 있지만, 발전 정도는 각 공정마다 다르다고 한다. 가장 큰 특징은 방직 단계에서 일부의 대기업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영세 기업(零細 企業)이라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직 부문에 있어서는, 고용자수에서 ‘핸드 룸(hand loom : 手織機) 공장 - 전통적인 가내 수직 공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생산 규모에서는 파워 룸 공장(power-loom 工場 -동력으로 직기를 돌리는 中小 工場)이 많다.

정부의 섬유 시책은 중소 공장의 설비 갱신(更新) 추진과 선진 섬유 공업이 집적(集積)하는 종합 섬유 파크(綜合 纖維 park)의 개발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 섬유성(印度 纖維省)은 섬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자 테크니컬 텍스타일(technical textile)의 수요를 환기(喚起)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초적인 산업 자재 등을 포함한 초기적인 것이다.

◎ 화섬 산업의 상황 - 면화 대체로 화섬의 단섬유는 계속 오름세

2008년도의 화섬 생산량은 251만 3천 톤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10.3% 줄었는데, 세계 경기 후퇴(世界 景氣 後退)의 영향은 피할 수 없었다. 가장 큰 생산 품종인 폴리에스터 장섬유 생산은, 가장 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Reliance Industries)’를 중심으로 142만 톤 규모로, 2008년 후반에는 감산으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자가 방사를 하고 있는 직물 공장의 생산이 30만 톤 정도 있다고 한다. 섬유 소비 전체의 경향도 부진하며, 화섬도 내수 중심의 공급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근년에는 면(cotton)으로부터 소재가 바뀌는 경향도 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나일론 장섬유와 레이온 장섬유는 타이어 코드(tire cord)용이 상당 규모가 되며, 자동차 생산 확대도 있어 수요는 바닥이 단단하다.

◎ 섬유 무역 - 수입은 중국이 전체의 40%를 웃돌아

2007년의 섬유 제품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이고, 섬유 제품 수입은 수출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과거에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유지하던 경위(經緯)가 있지만, 근년에는 대폭적으로 관세를 낮추었다. 수출 대상국은 EU와 미국이 전체의 반을 웃돌며, 그 다음이 중동이다. 인도가 수입해 오는 나라는 중국이 전체의 40%를 웃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세어는 수출입 모두 1 ~ 2% 정도로 매우 적다.

2008년 후반부터 구미의 소비 부진, 구미에 의한 중국 제품의 규제 철폐 등으로 구미로의 수출이 별로 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부품 산업 - 자동차용 섬유 자재 92억 엔 규모

인도의 자동차 산업은 여명기로서 자동차 부품 산업도 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물류에서의 편리성(便利性) 등으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델리(Delhi) 수도권 지역, 마하라슈트라주(洲), 타밀나두주(洲), 카루나타카주(洲)의 4개 거점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는데, 2008년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230만대로 일본의 20%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판매고는 최근 4년간에 2.6배로 커졌다. 최근에는 인도 국내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으며, 수출 수요의 부진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

섬유 자재 시장(纖維 資材 市場)은 시트 벨트(seat-belt), 에어 백(air bag), 카시트(car-sheet)의 합계로서 약 92억 엔 규모로 추정된다. 일본의 이 시장을 약 1,812억 엔 정도로 보면, 이의 약 5%에 불과하며, 완성차 시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카시트(car-sheet)나 기타 내장재는 현지에서의 조달이 늘고 있는데, 고 스펙 제품(高 specification 製品)은 현지에서는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시트 벨트나 에어백은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다. 타이어 생산량은 일본의 40%를 좀 넘는 규모로, 길이 좋지 않은 인도에서는 나일론 타이어 코드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타이어 코드 직물의 생산량은 7만 7천 톤으로 내수의 약 2/3가 된다.

자동차용 섬유 자재에 대하여는 시트 벨트나 에어백 장착률(裝着率) 증가, 수출 사양차(輸出 仕様車)의 생산 확대 등으로, 수요는 확실히 커질 전망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적으며, 앞으로 직접 수출이 확대될 여지는 많지 않으나, 일본계 메이커의 아세안(ASEAN) 등 해외 생산 거점을 사용한 오퍼레이션(operation)은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일본과의 접점

실이나 솜 단계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시장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非) 코스트 경쟁력과 기술적 차별화뿐이다. 아크릴 단섬유의 특수 그레이트(grade)나 큐프라(cuprammonium) 섬유 등은 이미 상당 규모의 수출 실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소재 자체가 특수하여 경합 메이커가 적은 것은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자(supplier)가 스스로 수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능동적인 시장 개척과 시장에 참여한 후에는 긴밀한 기술 지도가 꼭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인도 섬유 산업의 중류(中流)에서는 2극화하고 있다. 실과 솜 단계에서는 한쪽의 극에는 고도 생산 설비(高度 生産 設備)를 갖추고 있어, 수출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사업을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낡은 제조 설비와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빠르게 변할 것 같지 않아, 이러한 인도 섬유 산업의 특수성(特殊性)·후진성(後進性)을 역으로 이용하여 ‘낡은 생산 설비’ + ‘고부가 가치 실·솜’과 같이 짝지어 특징이 있는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의류용 생지를 공급해 줄 대상으로서는 아직 수준이 낮으며, 생지(生地) 관계의 판매는 인도 여성의 양장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캐주얼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장기(長技)인 드레스 분야를 보급하기에는 아직 멀다고 본다.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서 봉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갖고 갈 기지(基地)로 하기에는 거리가 비교적 멀고, 코스트에도 문제가 있으며 구미(歐美) 제품용 생지(生地)를 판매하는 것도 아직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자동차 용도는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산업 자재 용도인데, 현재 고도의 섬

유 자재는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착실하게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지 생산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이밍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재(衛材)는, 그 나라의 한 사람당 GDP가 2,000 ~ 3,000 달러 수준에서 부직포로 만든 생리용품이 보급되며, 종이 기저귀는 5,000 달러 이상 수준이라야 보급된다고 보고 있다. 인도 전체에서는 한 사람당 GDP가 942 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현재도 인도 북부의 대도시나 리조트(resort)가 있는 주(洲)나 텔리 수도권 등과 같은, 높은 경제력이 있는 지역은 2,000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인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쓰고 버릴 위재’가 널리 보급된 상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장차 어느 경제 수준을 넘는 시점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의 소비가 널리 침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서 보더리스화(borderless化)한 세계의 섬유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인도는 내수 시장 중심이며, 중국과는 규모가 크게 다르고, 일본과의 접점이 아직은 작다. 그러나 인도는 확실히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소재 반제품(素材 半製品)에 대한 앞으로의 큰 시장으로서도 잠재적으로 큰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장차 계속 지켜봐야 할 시장이다.♣